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와 이유 연구:

뉴스주제, 보도량, 보도태도, 미디어 정보원을 중심으로*

오대영**

21세기 들어 아시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아시아 국가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도 크게 늘고,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신문의 아시아에 대한 보도양상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4개 신문이 2011년에 보도한 1786개의 국제뉴스 내용을 분석해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와 이유를 알아봤다.

보도량에서는 아시아(45.7%)보다 서구(54.3%)뉴스가 많았다. 아시아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가장 많았으나, 서구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가장 적고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뉴스가 가장 많아 한국신문은 아시아보다 서구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국제뉴스를 도덕·정의, 정치, 경제·과학, 사회, 외교·국방, 인간적 흥미, 인물 등 7개의 주제로 분류했다. 주제별 보도량을 보면 아시아에 대해서는 외교·국방, 도덕·정의, 정치 등 경성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서구에 대해서는 경성기사 이외에 인간적 흥미, 인물 등 연성기사도 많이 보도해 아시아보다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했다. 경성기사에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많았고, 연성기사에서는 긍정 또는 중립적인 태도가 가장 많았다. 그 결과 한국신문의 국제뉴스는 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이고, 서구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내게 됐다.

미디어, 정부, 민간조직, 개인, 자료 등 5개의 핵심 정보원 가운데 미디어만이 서구와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의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은 서구 미디어보다 아시아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 서구 미디어 정보원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한국신문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의 뉴스에서는 전적으로 서구미디어를 핵심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의 국제뉴스는 서구중심적이 되고, 아시아에 더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게 되었다.

한국신문의 서구와 아시아에 대한 보도양상은 많이 보도한 주제와 외국 미디어 정보원 의존 형태에 따라 달라졌다. 한국신문은 특파원 등을 활용한 직접 취재, 인터넷을 이용한 아시아 매체활용 확대 등으로 아시아에 대해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한국신문, 아시아, 서구, 뉴스주제, 보도량, 보도태도, 미디어 정보원

1. 문제제기

21세기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아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온다. 아시아¹⁾는 가장 큰 대륙으로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발전해왔으나 서구보다 근대화에 뒤처지면서 세계무대에서 밀려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이 됐으며,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 이 논문은 2011년도 가천대학교 신입교수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11-R269). 이 논문은 한국언론학회 201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김정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장님과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dayyoung@gachon.ac.kr)

1) 아시아의 면적은 4,397만6000km²(شم을 제외한 면적)로 세계 육지 면적의 30%이며, 인구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39억3200만명(2005년)으로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한다(두피디아).

성장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다양한 민족, 종교, 이념이 있어서 과거부터 갈등이 많았고, 지금도 영토, 역사 등의 이유로 국가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아 내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 발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구체적인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ASEAN)이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체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창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2011년부터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²⁾을 공동으로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 사람들 간의 국제교류도 매우 활발해졌다. 한국에서는 21세기 들어 결혼, 취업 등을 위해 이주한 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크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2)에 따르면 2012년 5~6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409,577명이었다. 전년보다 11.4% 늘어나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55.4%, 동남아시아 22.1%, 미국 4.9%, 남부아시아 4.5%, 일본 2.7%로 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전년보다 11.4% 많은 292,096명으로 늘어나 한국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도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입 규모는 2011년 7018억 달러로 전년보다 23.8% 증가했다(한국무역협회, 2012). 아시아 지역에 사는 한국동포의 수는 2011년 4,079,522명으로 2년 전보다 9.5% 늘었다(외교통상부, 2011, 3쪽).

아시아는 이같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고,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구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면 동남아시아와 같이 저발전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편견, 부정적인 선입관,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장태한, 2001; 정의철·이창호, 2007). 한국에서 서양인들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반면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민이나 근로자들은 가난한 국가 출신이란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권미경, 2009, 161~163쪽; 김경희, 2011; 정현숙, 2004; 허영식, 2011, 85쪽).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아시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그들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바람직한 리더 역할을 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³⁾

우리 사회의 아시아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미디어가 수용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 미디어의 보도는 의제설정, 프레임링 등 여러 방법으로 수용자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용자들은 경제 등 일상생활에서 실감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될수록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평가하지만, 물리적이거나 시간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이슈에 대해서는 미디어에 의존한다(Soroka, 2002).

2) 한국, 일본, 중국의 교육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 3국 대학의 학생교류와 공동·복수학위 등 대학간 심화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3)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내세워 근대화에는 빨리 성공했지만, ‘서구 중시, 아시아 경조 풍조’가 생겨나 아시아 침략, 불충분한 역사 반성 등으로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탈아입구는 19세기말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계몽사상가였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1884년 신문에 쓴 글의 제목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들어가자’는 뜻이다. 일본의 ‘서구 중시, 아시아 경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오대영, 2007, 212쪽).

개인이 경험하기 힘든 이슈 가운데 국제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어서 미디어의 국제뉴스는 수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성해, 2007). 따라서 한국 미디어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은 수용자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국신문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보도한 국제뉴스의 양상을 비교해서 차이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아시아에 대한 보도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신문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보도한 국제뉴스의 주제, 보도량, 보도태도, 그리고 핵심 정보원으로서의 외국 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논의

1) 국제뉴스 생산과 유통의 특징

국제뉴스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물리적·상징적 영역 외부에서 발생하고, 그 행위 또는 관심의 주체는 국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인이며, 국가이익 및 국제사회 공동의 이해관계나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와 관련한 주요 사건 및 사안들을 다루는 뉴스로 정의된다(김성해·유용민·심영섭, 2011). 갈통과 루지(Galtung & Ruge, 1965)는 국제뉴스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발생 빈도, 사건의 강도, 명확성, 연관성, 예측성, 돌발성, 지속성(속보성), 오락성, 엘리트 국가, 엘리트 사람, 특정 인물, 부정적 사건 등 12개를 제시하고는 이들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을수록 국제뉴스가 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후속 연구에서도 입증됐다(Harcup & O’Neill, 2001; Sande, 1971; Smith, 1969).

그러나 매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이 미디어에서 모두 균형있게 보도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서구는 지리적 규모가 작지만 국제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의 이슈는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Chang, 1998). 서구에는 국제적인 주요 기관들이 몰려있는 등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뉴스에서 세계는 워싱턴, 런던, 파리과 같은 중심부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주변부로 분류된다(Ginneken, 1998, pp.128~132). 뉴스 가치에 따라 보도의 비중을 달리하는 미디어의 보도 특성상 중심부의 뉴스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한 일본의 교도통신을 제외한 여러 국가의 미디어들은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과 유럽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김성해·김동윤, 2009). 이같이 한 국가가 위치한 지역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가장 핵심적인 국제뉴스 결정요인이며, 국가 간의 역학관계가 국제뉴스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근본요인이 된다(김영욱·장호순, 2002, 29쪽).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와 특별한 수용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한다(Miller, 2007). 특히 미디어들은 국제뉴스를 보도할 때 자신이 속한 국가의 관점에서 보도한다(박천일, 1996; Gans, 2004, pp.8~38; Kalyango, 2011). 그런데 AP, 로이터, AFP 등 세계 3대 글로벌 뉴스통신사와 미국 CNN, 영국 BBC 월드뉴스 등 세계적인 국제뉴스 전문TV들의 대부분이 서구에 있어 국제뉴스가 서구중심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서구의 글로벌 미디어들도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수용자들을 위한 국제뉴스를 제공하고 있어 중심부의 시각이 이들의 국제뉴스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서구의 글로벌 미디어들이 국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국제뉴스에서 주변부는 소외를 당하고 중심부와 불평등한 정보 교류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Kim & Barnett, 1996). 서구의 글로벌 미디어에서 국제뉴스는 중심부인 서구의 소수 엘리트 국가 중심으로 보도되는 반면 주변부에 대한 뉴스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갈등과 재난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Franks, 2010; Peterson, 1981; Tai, 2000). 서구 미디어가 세계의 주변부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나 문화보다는 사건과 사고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Barry, 2012).

1970년대 주변부의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뉴스 생산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국제정보질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김성해, 2007). 그 결과 아랍의 알-자지라와 같이 비서구권의 시각에서 뉴스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국제적인 미디어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서구 미디어의 뉴스, 오락물 등은 여전히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현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면서 세계의 의제설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Thussu, 2006/2009, 236~259쪽; Wu, 2003). 인터넷 시대가 되어 세계 각국의 지역 미디어들이 세계의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서구 미디어에 대한 의존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다(Berger, 2009; Himmelboim, 2010).

2) 한국 신문·방송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뉴스·프로그램의 특징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보도량, 보도주제, 보도태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제뉴스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그 지역과 국가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고, 정보와 지식의 부족은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Perry, 1990). 국제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성공한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McNelly & Izcaray, 1986).

한국신문의 국제뉴스 보도량을 보면 1990년대에는 북미와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에 편중돼 있었다(김택환, 1994; 이재원·김정탁, 1995).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에 대한 보도량이 증가해 북미와 아시아의 기사량이 비슷해졌다(김수정, 2009; 김영옥·장호순, 2002, 57쪽). 김성해·유용민·심영섭(2011)의 연구에서는 북미 32.0%, 아시아 51.0%, 유럽 8.5%로 아시아 기사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아시아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국신문들이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과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의 주제는 어떤 측면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수용자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신문의 국제뉴스는 전반적으로 일탈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심재철, 1977). 그러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뉴스 주제별로 보도량을 보면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긍정적이다.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서구 뉴스가 많지만 사건·사고, 정치적 갈등 등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아시아 등 후진국 뉴스가 많았다(김영옥·장호순, 2002, 45쪽). 한국신문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관련해서 중국·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보도한 반면 지역공동체나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사는 거의 신지 않았다(김성해·김경모, 2010). 뉴스의 질에서도 서구 뉴스가 아시아 뉴스보다 높아, 선진국에 대해서는 정보성이 강한 공공적인 뉴스가 많고, 후진국에 대해서는 선정적인 뉴스가 많았다(구교태·김세철, 2004).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여성 결혼이민자, 외국 노동자와 관련된 뉴스 보도나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했다.⁴⁾ 이들 내용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인종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뤄졌는데, 아시아와 서구 출신 외국인이 차별적으로 재현되고 있었다(김경희 2009; 송덕호, 2008; 양정혜, 2007; 한건수, 2003). 아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비전문인’, ‘심리적 불안정자’, ‘하층생활자’, ‘피해자’,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 등으로 묘사되고, 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나 낯설고 무서운 존재로 다뤄진다. 한국의 TV에서 인기있는 외국인들은 대체로 잘사는 국가의 백인들이며, 한국미디어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낙후되고 더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정현숙, 2004).

그 결과 한국미디어는 인종적 소수자를 한국인보다 생물학적,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위치매김 하면서 인종을 통한 계급의 형성과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홍지아·김훈순, 2010). 그런데 한국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갖고 있는 아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뉴스의 기억은 결혼 여성이민자와 만난 후에는 줄었다. 한국미디어가 실상보다 더 부정적으로 아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를 재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미국에서는 미디어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이주한 소수 인종 사람들에 대해 정형화된 형상(stereotypical portrayals)으로 계속 재현하면 수용자들은 그대로 생각하거나 고정 관념을 갖게 되며, 인종주의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었다(Ford, 1997; Gorham, 1999). 미국 미디어에서 아시아 남성들은 대체로 공부벌레, 갱단, 매력없는 남성, 영어를 못 하는 이민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편견을 당한 당사자도 무의식중에 이를 인정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영, 2011). 따라서 한국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아시아와 서구 출신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재현하면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주의를 심어 주고,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만을 갖게 되어 한국사회에서 인종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3) 정보원

정보원은 ‘실명이나 익명, 코멘트, 문장 방식으로 정보나 의견을 주는 사람들’(Sumpter & Braddock, 2002)로 정의된다. 기자들은 시간,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모든 이슈들을 취재할 수 없어서 상당부분 정보원에게 의존한다. 그런데 미디어의 보도에 나타나는 핵심 정보원은 그 사회의 주요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디어의 보도 프레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디어가 특정 사안을 보도할 때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는지, 누구의 ‘시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는 핵심 정보원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김성해·김경모, 2010).

정보원의 다양성은 기사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반현·김남이·노혜정,

4) 지상과 방송국들의 주요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오대영·안진경, 2011, 175~187쪽). 장편 드라마로는 KBS의 <산너머 남촌에는>, SBS의 <황금신부>, EBS의 <마주보며 웃어>가 있으며, 단편드라마로는 SBS의 <하노이 신부>, <깜근이 엄마>가 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는 KBS의 <러브 인 아시아>, MBC의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등이 있다. KBS의 스페셜 프로그램 <외국인 100만 시대, 국경없는 대한민국>, MBC의 스페셜 프로그램 <나는 한국남자와 결혼했다>도 방영됐다. 정치 오락 프로그램으로는 KBS의 <미녀들의 수다>가 있다. KBS의 <아침마당>, <인간극장>이나 MBC의 <느낌표>와 같은 시사프로그램에서도 특집 방송을 했다.

2010).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는 미디어, 정부, 공무원, 정치인, 학자 등 여러 정보원이 등장하지만, 서구 중심의 세계정보 분배 시스템 속에서 한국신문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등 서구 미디어에 많이 의존한다(구교태·김세철, 2004; 김수정, 2009; 김성해·유용민·심영섭, 2011; 김영옥·장호순, 2002; 박기순·이남표, 2001). 한국 미디어가 특파원 등을 보내 직접 취재하기보다는 외국 미디어의 뉴스에 의존해 보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⁵⁾

그 결과 외국의 주요 미디어가 정한 국제뉴스 의제가 한국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간 의제설정 현상이 발생한다. 매체간 의제설정은 ‘한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건호, 2006)이다. 특정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정보가 많다고 평가받는 엘리트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의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Kiousis, 2004).

3.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한국신문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보도한다. 수용자들이 한국신문에서 많이 접하는 주제에 따라 수용자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신문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어떤 주제의 뉴스를 많이 보도했느냐는 수용자들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한국 신문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보도한 뉴스의 주제에서 차이가 있는가?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는 뉴스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런 차이는 수용자들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2: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 나타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1: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한국신문의 국제뉴스 주제별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 뉴스에는 많은 정보원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정보원이 있다. 핵심 정보원은 외국 미디어, 정부, 민간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지역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신문도 외국 미디어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외국 미디어는 다른 핵심 정보원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한국신문의 보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 미디어는 서구와 아시아 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서구와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는

5) 언론사가 해외특파원을 유지하는데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특히 한국신문사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영절감을 이유로 미국·중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 특파원을 철수시켰다. 그래서 한국신문사들은 주요 국제뉴스를 외국미디어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신문이 누구에 더 의존하는가는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3: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외국미디어 정보원은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1: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핵심 정보원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보인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2: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 정보원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3: 한국신문은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국제기사에서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 정보원 가운데 누구를 더 인용하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4개의 전국 신문에 실린 국제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⁶⁾ 대표적인 보수(조선, 동아)와 진보(한겨레, 경향) 신문들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4개 신문들이 한국신문을 대표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다.⁷⁾ 분석 기사는 유층 표집 방식에 따라 4개 신문이 2011년에 보도한 국제기사에서 선정했다.⁸⁾ 보수와 진보신문이 같은 기간에 보도한 기사를 분석한다는 원칙에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홀수달,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짝수달의 첫째주(월~토요일)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신문마다 36일간의 국제기사가 분석됐다.⁹⁾

분석 기사들은 한국신문 기사가 지면 또는 스크랩 형태로 제공되는 뉴스 아카이브 서비스인 아이서퍼¹⁰⁾에서 온라인으로 지면을 찾아 선정했다. 분석 기사는 ‘남북한을 제외한 아시아와 서구에서 발생한 뉴스’, ‘남북한과 관련된 경우 외국 뉴스가 중심인 뉴스’를 기준으로 정했다.¹¹⁾ 분석 기사는 1면, 종합면, 국제면, 경제면, 문화면, 스포츠면, 기획면, 인물면, 오피니언면에 실린 아시아와 서구 관련

6) 미디어의 국제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이다(Barry, 2012).

7) 한국신문들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명백하게 보도태도가 다르다. 국내 뉴스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보수와 진보로 선명하게 구분됐다(김경희·노기영, 2011). 그러나 국제뉴스에서는 이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박기순·이남표, 2001). 본 연구에서도 이념에 따른 차이는 연구의 의미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 분석하지 않았다.

8) 내용 분석을 위한 표본 표집 방식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유층 표집, 군집 표집 등 여러 방식이 있다. 유층 표집은 하나의 모집단을 좀더 작은 집단으로 나눈 다음 그런 집단들 내에서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것이다(Riffe, et al., 1998/2001, 162쪽).

9) 일간 신문의 1년 간 보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효율적인 표집방법은 ‘모든 요일이 두 번씩 포함되도록 무작위로 요일을 추출해 만든 2주일치’이다(Riffe, et al., 1998/2001, 168~179쪽). 본 연구에서는 신문마다 월~토요일이 6번씩 포함됐다.

10) <http://www.eyesurfer.com/>

11) 분석 기사는 외국 뉴스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기준 아래 국내 뉴스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뉴스를 덧붙인 기사는 제외했다. ‘유럽 재정 위기로 (한국) 정부 하반기 회복 전망 수정’(동아일보 2011.6.10. 경제 2면)과 같은 기사가에 이에 해당한다.

기사를 포함했지만 단신 모음 기사는 제외했다.¹²⁾ 지면은 신문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했다.

국제뉴스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다수로 등장하는 기사들이 많다. 그래서 아시아와 서구 뉴스를 분류할 때는 가장 핵심 뉴스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핵심 뉴스가 두 대륙에서 동등하게 발생했을 때는 복수의 대륙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정해진 1751개의 기사 가운데 35개에서는 2개 대륙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등장해 실제 분석 기사는 1786개가 됐다.¹³⁾ 신문사별로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29.6%(n=529), 동아일보 26.4%(n=472), 한겨레신문 20.8%(n=372), 경향신문 23.1%(n=413)이었다.¹⁴⁾ 지면별 국제기사 비율은 1면 5.4%(n=96), 종합면 11.4%(n=204), 국제면 54.0%(n=964), 경제면 6.6%(n=117), 문화면 3.5%(n=62), 스포츠면 6.3%(n=112), 인물면 5.4%(n=96), 기획면 3.4%(n=60), 오피니언면 4.2%(n=75)이었다.

(2) 분석 유목

① 대륙 및 지역

북미와 유럽을 합쳐서 서구로 규정했다.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속해 있고, 국제사회에서 별도 대륙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서구에서 제외했다.¹⁵⁾ 아시아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5개 지역으로, 서구는 북미, 서유럽, 동유럽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했다.¹⁶⁾

대륙별 분석대상 기사 비율은 아시아 45.7%(n=816), 서구 54.3%(n=970)이었다. 8개 지역 가운데 북미(34.7%), 동아시아(28.9%), 서유럽(18.5%), 서남아시아(12.1%) 등 4개 지역의 기사가 전체의 94.2%를 차지했으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관한 기사는 매우 적었다(<표1>). 한국외교에서 미국·중국·일본 등 3개국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2)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신문은 여러 면에서 국제뉴스를 보도하고 있어 본 연구는 모든 면을 분석대상으로 정했지만 대부분 국내 기사를 실는 사회면은 제외했다.

13) 신문의 의제화는 기사의 위치, 지면, 크기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김성해·송현진·이나연·이정환, 2010). 그러나 본 연구는 뉴스 기사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니며, 모든 면마다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게재면과 기사 크기에 따른 뉴스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14)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매일 12면 분량의 경제섹션면을 별도로 발행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보다 분석대상 기사가 많았다.

15) 온라인 두산백과사전인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에 따르면 지구의 육지는 통상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등 7개 대륙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면적·인구에서 하나의 대륙으로 볼 수 있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엔에서도 우랄 산맥 서쪽의 러시아 영토를 제외한 유럽을 유럽 대륙으로 구분한다.

16) 두피디아에 따르면 아시아는 북부, 중앙, 서남, 남부, 동남, 동아시아 등 6개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사 가운데 북부아시아에 대한 기사는 없었다. 유럽은 독일을 기준으로 독일 동쪽 지역을 동유럽으로, 서쪽을 서유럽으로 규정했다.

<표 1> 대륙·지역별 기사 건수

대륙	건수(%)	지역	건수(%)
아시아	816 (45.7)	동아시아	516(28.9)
		동남아시아	54(3.0)
		남부아시아	4(0.2)
		중앙아시아	26(1.5)
		서남아시아	216(12.1)
서구	970 (54.3)	북미	620(34.7)
		서유럽	331(18.5)
		동유럽	19(1.1)

② 기사 종류

기사 종류는 스트레이트 49.2%(n=878), 해설 17.2%(n=308), 스케치 3.0%(n=54), 화제 11.3%(n=201), 사진 9.9%(n=176), 인터뷰 2.1%(n=37), 기획 0.9%(n=16), 사설 및 칼럼 4.9%(n=88), 단순정보 1.6%(n=28)이었다.¹⁷⁾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쓰는 스케치, 인터뷰, 기획 기사가 매우 적은 것은 외국 미디어에 의존하는 기사가 많기 때문이었다.

③ 뉴스 주제

한국신문의 취재영역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인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정했다. 그러나 모든 뉴스의 주제를 단순히 취재영역에 따라 구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기본권, 부정부패, 공정성, 사회정의와 같은 이념적, 정신적, 가치지향적인 문제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서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혼합돼 작용해서 ‘월가 시위’¹⁸⁾와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시민운동이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뉴스를 취재영역에 따라 특정 주제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간생활에서는 물리적인 영역 못지않게 정신적인 영역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덕, 정의, 철학, 이념과 같이 가치지향적인 사건이 핵심 배경인 뉴스는 ‘도덕·정의’라는 주제로 분류를 했다. 정치, 경제 등 다른 주제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사실적 내용을 주로 담은 기사를 포함시켰다.

또 미디어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휴식을 제공하는 오락기능이며, 공중의 예술취향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Severin & Tankard, 2001/2005, 438~439쪽) 문화와 스포츠, 일상생활 화제 등을 합쳐서 ‘인간적 흥미’라는 주제로 규정했다. 그 결과 기사의 주제는 도덕·정의, 정치, 경제·과학, 사회,

17) 신문·방송 기사 형식은 스트레이트, 해설, 스케치, 기획, 리포트, 가십, 인터뷰, 속보, 논평,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윤석홍·김춘욱, 2004, 56쪽). 스트레이트는 사실 위주로 쓰고, 해설은 상세히 설명하고, 스케치는 장소 또는 행사를 이야기 중심으로 쓰고, 기획은 특정 주제를 정해서 전달한 기사다. 리포트는 라디오나 TV 보도를 위해 쓴 기사이며, 가십은 흥미 위주로 쓰고, 인터뷰는 대화 형식으로 쓰고, 속보는 기존 뉴스의 추가 사실을 전달하고, 논평은 현안에 대해 언론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분류했으나 리포트와 기타는 해당내용이 없어서 제외했다. 대신 국제뉴스에는 단독 사진기사가 많아서 별도로 분류했다. 단순 정보는 행사 소개와 같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다.

18) 2011년9월에 미국 월가에서 빈부격차 심화와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반발하면서 발생해 전세계로 확산됐던 대규모 시위다. 신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금융기관들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렸고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외교·국방, 인간적 흥미, 인물 등 7개로 분류됐다(<표2>).

가. 도덕·정의

민주주의, 인권 보호, 종교 자유, 언론 자유, 빈부격차 해소, 부정부패, 공정성 등의 가치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국 재스민 대책 ‘외신기자 겁주자’ 시위취재기자 15명 구금…‘법 지켜라 경고’”(『한겨레신문』 3월8일 21면)

“카이로의 봄…시민들 ‘우리가 독재를 무너뜨렸다’”(『경향신문』 2월12일 3면)

나. 정치

최고 정치지도자의 정국 운영, 정당 움직임, 시국, 내전, 정치적 테러 등이 해당한다.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깊은 행정과 정책 내용도 포함했다.

“살레, 치료차 사우디로…망명설”(『동아일보』 6월6일 15면)

“마에하라 외상 사퇴…간 내각 사면초가”(『한겨레신문』 3월7일 22면)

다. 경제·과학

환율, 증시, 물가, 취업 등 경제 상황, 기업들의 경제 행위와 신상품 개발, 과학기술, 일반적인 경제·과학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中 ‘성장률 연 7%로 낮추겠다’”(『조선일보』 3월7일 A18면)

“미국 제조업지수 오름세 세계경제 낙관론 불지퍼”(『한겨레신문』 1월5일 24면)

라. 사회

사회적 범죄, 사건사고, 재난 재해, 환경 파괴 등의 물리적인 사회 안전 문제와 연금, 사회보장 등 사회 안전망, 일반적인 사회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6km 떨어진 곳에서 ‘돌이 비오듯’ 공포”(『동아일보』 2월7일 A19면)

“일 도쿄 하수처리시설서 고방사선량”(『경향신문』 6월9일 10면)

마. 외교·국방

국가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외교와 국방에 관한 내용이다. 외교와 국제교류, 국방력, 외국과의 전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中 자체개발 스텔스 전투기 곧 시험비행”(『조선일보』 1월6일 A16면)

“캄보디아-태국 국경분쟁, 유엔 안보리 가나”(『경향신문』 2월8일 16면)

바. 인간적 흥미

문화, 스포츠 내용들과 일상생활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獨노인들 火葬여행”(『조선일보』7월8일 A21면)

“中 현대회화, 최고가 110억원에 팔렸다”(『경향신문』4월5일 16면)

사. 인물

국제적인 저명인사들의 언행은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화제거리만을 포함시켰다.

“미셸 오바마 ‘남편이 금연에 성공했어요’”(『경향신문』2월10일 15면)

“홍콩 민주화의 별 스러지다”(『한겨레신문』1월4일 21면)

<표 2> 국제뉴스의 주제와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도덕·정의	민주주의, 인권 보호, 종교 자유, 언론 자유, 빈부격차 해소, 부정부패, 공정성 등의 가치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주제
정치	최고 정치 지도자의 정국 운영, 정당간 협조와 경쟁, 시국 불안정, 내전, 정치적 테러,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많은 행정과 정책
경제·과학	환율, 증시, 물가, 취업 등 경제 상황, 기업들의 경제 행위와 신상품 개발, 과학기술, 일반적인 경제·과학 정책
사회	사회적 범죄, 사건사고, 재난 재해, 환경 파괴 등의 물리적 안전 문제와 사회보장 등 사회 안전망, 일반적인 사회정책
외교·국방	외교와 국제교류, 국방력, 외국과의 전쟁, 외교·국방 관련 정책
인간적 흥미	문화, 스포츠, 일상적인 생활에서 흥미로운 내용
인물	외국 인사들의 개인적인 화제거리

④ 보도태도

보도 논조를 뜻하는 보도태도는 긍정, 부정, 중립 등 셋으로 구분을 했다.¹⁹⁾ 긍정적 태도는 우호적인 논조이며, 부정적 태도는 비판적인 논조다. 중립적 태도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경우다. 기사에서 우호적 논조와 비판적 논조가 모두 들어있으면 비중을 따져서 판단했고, 비슷하면 중립적인 태도로 분류했다. 보도 태도는 우선 기사의 제목과 첫 문장, 끝 문장에서 결정을 했고, 불확실하면 기사 전체의 맥락을 보고 정했다.²⁰⁾ 제목으로 구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태도: “춘제로 뜬 中 농민공 듀엣 ‘인생역전’”(『경향신문』2월7일 8면)

19) 많은 연구에서 보도태도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등 셋으로 구분된다(최원석·반현, 2006; Hester & Gibson, 2003).

20) 기사의 제목, 첫 문장, 끝 문장에는 프레임 도구라고 불리는 핵심사실들이 있다(de Vreese, 2004). 특히 제목은 뉴스 내용을 요약해 독자의 주목을 끌고, 독자는 기사를 이해하거나 의견을 형성할 때 제목에 의존한다(정태철, 1995). 제목은 훌륭한 저널리즘의 기능을 한다(이승선, 2011).

부정적 태도: “이번엔 물고기 200만마리 떼죽음”(『조선일보』1월8일 A12면)

중립적 태도: “과세에 저주로 맞선 주술사들”(『한겨레신문』1월7일 22면)

⑤ 핵심 정보원

핵심 정보원은 외국 미디어, 정부, 민간조직, 개인, 자료 등 5개로 분류했다. 한 기사에는 여러 정보원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핵심 정보원으로 규정했다. 외국 미디어 정보원이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로 구분했다.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은 중국, 일본, 기타 지역 미디어 정보원으로, 서구 미디어는 미국과 유럽 미디어 정보원으로 다시 분류했다.

정부에는 기관과 대통령, 총리 등 주요 공직자가 포함됐다. 민간기관, 연구소, 기업 등은 민간조직으로 규정했다. 개인 정보원은 정치인, 학자 등이 개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자료는 각종 보고서와 책자 등이다. 본 연구는 외국 미디어가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정부, 민간조직, 개인, 자료 정보원은 아시아와 서구로 분류하지 않았다.

(3) 기사 코딩 및 분석

4개 신문에서 각각 분석 기사의 약 10%씩, 총 182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2012년 4월 초에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에게 연구 목적과 코딩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연구자와 그 학생이 몇차례 협의를 거쳐 시험 코딩을 마쳤다. 코딩 항목별로 홀스티 방식에 따른 신뢰도는 86.3%~93.4%였다.²¹⁾ 이를 토대로 나머지 표본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코딩 작업을 했다. 분석은 SPSS 18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했다.

4.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1’은 ‘한국신문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보도한 뉴스의 주제에서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전체 국제뉴스에서 7개 주제가 보도된 건수는 외교·국방(n=324), 경제·과학(n=296), 인간적 흥미(n=275), 도덕·정의(n=274), 인물(n=245), 정치(n=218), 사회(n=154)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신문의 국제뉴스는 전쟁, 외교와 같이 국가 생존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을 가장 중시했다.

<표3>에서 보듯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뉴스 주제에서는 차이가 있었다($\chi^2=110.66$, $df=6$, $p<.001$). 아시아에 대해서는 외교·국방(20.5%), 도덕·정의(17.8%), 정치(16.3%), 경제·과학(15.2%), 사회(11.9%), 인간적 흥미(9.6%), 인물(8.8%)의 순으로 많았다. 서구에 대해서는 인간적 흥미(20.3%), 인물(17.8%), 경제·과학(17.7%), 외교·국방(16.2%), 도덕·정의(13.3%), 정치(8.8%), 사회(5.9%)의

21) 홀스티(Holsti) 공식은 $2M/(N1+N2)$ 다. 코더간 신뢰도가 85~95%이면 연구자는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신 아래 계속 조사할 수 있다(Riffe, Lacy, & Fico, 1998/2001, 214쪽).

순으로 많았다.

한국신문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경성기사에 해당하는 외교·국방, 도덕·정의, 정치 등을 주제로 한 뉴스를 많이 보도해 전쟁, 외교, 민주주의, 인권, 내전과 같은 무거운 주제의 이슈들에 우선적으로 뉴스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연성기사에 속하는 인간적 흥미, 인물에 관한 기사 비율은 가장 적어 아시아의 문화, 스포츠, 다양한 생활상과 인물에 대해서는 한국신문의 관심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서구 뉴스에서는 인간적 흥미, 인물 뉴스가 전체의 38.1%를 차지해 매우 비중이 높았다. 한국신문은 서구에 대해서는 꼭 전달해야 하는 사실 정보 이외에도 흥미위주의 일상생활이나 인물에 관해서도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었다. 정치 중심 뉴스는 다른 국가를 온건하게 이해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사회나 문화 관련 주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한다(김수정, 2009). 따라서 한국신문의 수용자들은 아시아보다는 여러 뉴스를 접하는 서구에 대해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인물을 주제로 한 기사에서는 서구 기사(173건)가 아시아 기사(72건)보다 매우 많아 한국신문은 아시아 인사들보다 서구 인사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크거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이들과 관련된 사건은 중요한 국제뉴스의 요인이다(Galtung & Ruge, 1965; Peterson, 1981).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세계적인 정치인, 경제인 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어 국제적인 영화, 스포츠 스타들을 연구하는 셀러브리티학도 발전했다(조영한, 2011). 이런 상황에서 한국신문이 아시아보다 서구 인사들을 훨씬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수용자들이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대해 더 호감을 갖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표 3>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 주제별 기사 건수(%)

대륙	도덕·정의	정치	경제·과학	사회	외교·국방	인간적 흥미	인물
아시아	145(17.8)	133(16.3)	124(15.2)	97(11.9)	167(20.5)	78(9.6)	72(8.8)
서구	129(13.3)	85(8.8)	172(17.7)	57(5.9)	157(16.2)	197(20.3)	173(17.8)

$\chi^2=110.66, df=6, p<.001$

2)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는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연구문제 2-1’은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이다. 전체 국제기사에 나타난 보도태도는 부정적(39.4%), 긍정적(31.2%), 중립적(29.4%)의 순서였다. <표4>에서 보듯이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48.8%), 긍정적(29.8%), 중립적(21.4%)의 순서로 많았고,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36.1%), 긍정적(32.4%), 부정적(31.5%)의 순서로 많아 차이가 있었다($\chi^2=66.623, df=2, p<.001$). 아시아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절반 정도였으나, 서구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22) 경성기사는 신속한 사실 전달과 현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연성기사는 독자의 오락성, 흥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독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기사다(김영욱·장호순, 2002, 42쪽).

뉴스가 가장 적고 중립적인 뉴스가 가장 많았다. 한국신문들은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표 4>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

대륙	보도태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아시아	243(29.8)	398(48.8)	175(21.4)
서구	314(32.4)	306(31.5)	350(36.1)

$\chi^2=66.623, df=2, p<.001$

‘연구문제 2-2’는 ‘한국신문의 국제뉴스 주제별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도덕·정의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57.9%), 긍정적(32.4%), 중립적(9.7%)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58.9%), 긍정적(24.8%), 중립적(16.3%)의 순으로 많이 보도했다.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기사가 매우 많아 차이가 없었다($\chi^2=3.727, df=2, p>.1$). 한국신문은 민주주의, 부정부패, 인권, 언론자유 등 가치지향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륙에 관계없이 비판적인 보도태도가 매우 강해 도덕·정의를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치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63.9%), 중립적(24.8%), 긍정적(11.3%)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37.6%), 중립적(36.5%), 긍정적(25.9%)의 순으로 많이 보도를 했지만, 차이가 있었다($\chi^2=15.582, df=2, p<.001$). 아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태도가 절반 이상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내전, 정치적 테러 등 정치적인 갈등이 많지만, 서구는 아시아보다 정치가 안정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됐다.

경제·과학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46.8%), 부정적(27.4%), 중립적(25.8%)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47.7%), 긍정적(27.3%), 중립적(25.0%)의 순으로 많이 보도해 차이가 있었다($\chi^2=15.245, df=2, p<.001$). 서구에는 선진국이 많고, 아시아에는 개발도상국이 많다는 통념과 달리 아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강했다. 2011년에 서구에서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사회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73.2%), 긍정적(19.6%), 중립적(7.2%)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61.4%), 긍정적(26.3%), 중립적(12.3%)의 순으로 많이 보도했으며, 차이는 없었다($\chi^2=2.474, df=2, p>.1$). 한국신문들은 대륙에 관계없이 사회 주제에서는 범죄, 테러와 같은 사회적 일탈현상이나 자연재해 등의 개인 안전 문제를 가장 중시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외교·국방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55.1%), 긍정적(29.9%), 중립적(15.0%)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38.9%), 긍정적(33.1%), 부정적(28.0%)의 순으로 많이 보도를 해 달랐다($\chi^2=31.772, df=2, p<.001$). 아시아에서는 국가간 영토 분쟁 등 외교·안보적으로 갈등이 많은 반면 국제적인 외교·안보 문제에서는 아직도 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인간적 흥미에 관한 기사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중립적(59.0%), 긍정적(21.8%), 부정적(19.2%)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73.1%), 긍정적(20.3%), 부정적(6.6%)의 순으로 많이 보도했다.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더 중립적인 보도가 많고 부정적인 보도가 적었다($\chi^2=10.429$, $df=2$, $p<.05$). 한국신문은 문화, 스포츠, 일상생활 내용에 대해서는 대륙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더 많이 전달하면서도,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대해 더 다양한 화제거리를 소개하려고 했다.

인물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51.4%), 중립적(25.0%), 부정적(23.6%)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긍정적(61.3%), 중립적(24.9%), 부정적(13.9%)의 순으로 많이 보도했으며 차이는 없었다($\chi^2=3.732$, $df=2$, $p>.1$). 한국신문들은 대륙에 관계없이 본받을만한 화제의 인사나 저명인사에 대해 많은 뉴스 가치를 두고 있었다.

한국신문이 뉴스주제별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가장 많이 나타난 보도태도를 종합하면 <표5>에서 보듯이 도덕·정의, 사회 주제에서는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모두 부정적 태도이었다. 정치, 외교·국방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서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경제·과학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인간적 흥미 주제에서는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가장 많았다. 인물 주제에서는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도덕·정의, 정치, 사회, 외교·국방 등 4개 주제에서 부정적, 인간적 흥미 주제에서 중립적이었고, 경제·과학과 인물 등 2개 주제에서만 긍정적이었다. 서구에 대해서는 도덕·정의, 사회, 경제·과학 등 3개 주제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정치, 외교·국방, 인물 등 3개 주제에서는 긍정적이었고, 인간적 흥미에서는 중립적이었다. 이같이 본다면 주제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대해 더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냈다.

<표 5> 국제뉴스 주제별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최다 보도태도

뉴스 주제	아시아	서구
도덕·정의, 사회	부정적	부정적
정치, 외교·국방	부정적	긍정적
경제·과학	긍정적	부정적
인간적 흥미	중립적	중립적
인물	긍정적	긍정적

3)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3’은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미디어 정보원은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와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3-1’은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서 핵심 정보원이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보인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분석대상 기사의 64.7%($n=1156$)에서 정보원이 있었다. 정보원의 종류는 미디어 69.7%($n=806$), 개인 13.2%($n=153$), 정부 7.3%($n=84$), 민간조직 6.4%($n=74$), 자료 3.4%($n=39$)로, 미디어가 매우 많았다.

핵심 정보원들이 서구와 아시아에 대해 보인 태도를 비교하면 <표 6>에서 보듯이 미디어 정보원에 서만 차이가 있었다($\chi^2=44.813$, $df=2$, $p<.001$). 5개 핵심 정보원들 가운데 미디어 정보원만이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4개 정보원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디어 정보원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52.8%), 긍정적(28.8%), 중립적(18.4%)의 순으로,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39.2%), 부정적(35.6%), 긍정적(25.2%)의 순으로 보도를 많이 해 아시아에 더 부정적이었다.

<표 6> 핵심 정보원들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태도

핵심 정보원	대륙	보도태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미디어*	아시아	119(28.8)	218(52.8)	76(18.4)
	서구	99(25.2)	140(35.6)	154(39.2)
정부**	아시아	15(31.3)	23(47.9)	10(20.8)
	서구	14(38.9)	10(27.8)	12(33.3)
민간조직***	아시아	9(28.1)	14(43.8)	9(28.1)
	서구	13(31.0)	15(35.7)	14(33.3)
개인****	아시아	24(34.8)	30(43.5)	15(21.7)
	서구	40(47.6)	25(29.8)	19(22.6)
자료*****	아시아	5(31.3)	6(37.5)	5(31.3)
	서구	3(13.0)	6(26.1)	14(60.9)

* $\chi^2=44.813$, $df=2$, $p<.001$, ** $\chi^2=3.699$, $df=2$, $p>.1$, *** $\chi^2=.507$, $df=2$, $p>.1$,

**** $\chi^2=3.488$, $df=2$, $p>.1$, ***** $\chi^2=3.623$, $df=2$, $p>.1$

‘연구문제 3-2’는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 정보원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표7>에서 보듯이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51.0%), 긍정적(31.6%), 중립적(17.5%)의 순서로,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48.1%), 중립적(37.0%), 긍정적(14.8%)의 순으로 보도를 했으며, 차이가 있었다($\chi^2=6.923$, $df=2$, $p<.05$).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은 아시아와 서구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나타냈지만, 서구보다는 아시아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다. 아시아 뉴스에서는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이 많이 등장할수록 긍정적인 뉴스가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서구 미디어 정보원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54.6%), 긍정적(26.1%), 중립적(19.3%)의 순서로,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39.3%), 부정적(34.7%), 긍정적(26.0%)의 순서로 보도를 해서 차이가 있었다($\chi^2=28.993$, $df=2$, $p<.001$). 서구 미디어 정보원이 많은 아시아 기사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고, 서구 미디어를 정보원으로 한 서구 기사에서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보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는 모두 자신이 속한 대륙에 대해 좀더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신문이 어느 미디어를 더 인용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됐다.

<표 7>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 정보원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

미디어	지역	보도태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아시아 미디어*	아시아	65(31.6)	105(51.0)	36(17.5)
	서구	4(14.8)	13(48.1)	10(37.0)
서구 미디어*	아시아	54(26.1)	113(54.6)	40(19.3)
	서구	95(26.0)	127(34.7)	144(39.3)

* $\chi^2=6.923$, $df=2$, $p<.05$, ** $\chi^2=28.993$, $df=2$, $p<.001$

‘연구문제 3-3’은 ‘한국신문은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국제기사에서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 정보원 가운데 누구를 더 인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미디어가 핵심 정보원인 기사 806개 가운데 서구 미디어 정보원은 71.1%,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은 28.9%여서 한국신문은 서구 미디어를 훨씬 많이 인용했다.²³⁾ 지역별 미디어로는 미국 41.8%, 유럽 29.3%, 중국 13.2%, 일본 10.2%, 기타 아시아 지역 5.6% 등이었다.

<표 8>에서 보듯이 대륙별 기사에 나타난 서구,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의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chi^2=181.251$, $df=1$, $p<.001$). 아시아 기사에서는 서구 미디어가 50.1%, 아시아 미디어가 49.9%이었다. 서구 기사에서는 서구 미디어 93.1%, 아시아 미디어 6.9%이었다. 아시아 기사에서는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가 균형있게 핵심 정보원으로 등장했으나, 서구 기사에서는 서구 미디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8> 대륙별 기사의 서구와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 건수(%)

대륙	서구 미디어	아시아 미디어
아시아	207(50.1)	206(49.9)
서구	366(93.1)	27(6.9)

$\chi^2=181.251$, $df=1$, $p<.001$

서구와 아시아 미디어를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표 9>에서 보듯이 아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미디어가 비교적 고르게 핵심 정보원이었으나, 서구에 대해서는 미국 미디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chi^2=187.608$, $df=4$, $p<.001$). 한국신문의 서구 뉴스에서도 미국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23) 분석 대상 기사에 핵심 정보원으로 등장한 특정 미디어 숫자는 신문, 방송, 통신, 잡지, 인터넷 등에서 95개였다. 미국 미디어가 36개, 유럽미디어가 21개로 서구 미디어가 60%(57개)이었다. 아시아 미디어는 중국 13개, 일본 11개, 기타 14개로 40%(38개)이었다. 특정 미디어가 인용된 기사 숫자를 단순 계산하면 서구 미디어가 10.1개, 아시아 미디어가 6.1개이었다. 한국신문이 아시아 미디어보다 서구 미디어의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대륙별 기사의 지역별 미디어 정보원 건수(%)

	서구 미디어		아시아 미디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기타 지역
아시아	111(26.9)	96(23.2)	94(22.8)	77(18.6)	35(8.5)
서구	226(57.5)	140(35.6)	12(3.1)	5(1.3)	10(2.5)

$\chi^2=187.608$, $df=4$, $p<.001$

아시아와 서구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미디어(40.4%)와 일본 미디어(33.3%)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서구 미디어가 핵심 정보원이었다(<표10>).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는 모두 자신이 속해 있는 대륙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신문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국제뉴스를 서구 미디어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아시아보다 서구에 우호적인 한국신문의 보도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지역별 기사의 서구와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 건수(%)

지역	서구 미디어		아시아 미디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기타 지역
동아시아	34(15.1)	19(8.4)	91(40.4)	75(33.3)	6(2.7)
동남아시아	12(36.4)	19(57.6)	0(0)	1(3.0)	1(3.0)
중앙아시아	9(56.3)	4(25.0)	0(0)	0(0)	3(18.3)
서남아시아	56(40.3)	54(38.8)	3(2.2)	1(7)	25(18.0)
북미	179(70.5)	57(22.4)	6(2.4)	5(2.0)	7(2.8)
서유럽	43(33.1)	78(60.0)	6(4.6)	0(0)	3(2.3)
동유럽	4(44.4)	5(55.6)	0(0)	0(0)	0(0)

5. 논의 및 결론

아시아 시대를 맞아서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해서 한국신문이 국제뉴스를 보도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 2011년에 보도한 1786건의 국제기사를 분석했다. 국제면에서 절반 이상 보도됐지만 1면과 종합면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고, 경제, 문화, 스포츠, 인물, 기획 등 다른 지면에도 고르게 실려 한국신문의 국제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기사(54.3%)가 아시아 기사(45.7%)보다 많아 한국신문은 서구 기사를 더 비중있게 다뤘다. 또 북미, 동아시아, 서유럽, 서남아시아 등 4개 지역의 뉴스가 전체의 94.2%를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기사는 매우 적어 지역 편중성이 심했다. 미디어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을 반영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신문이 한국과 관련이 많은 지역의 뉴스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뉴스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기사가 적은 것은 관심이 낮은 것으로도 해석된다(김수정, 2009; 김성해·유용민·심영섭, 2011). 따라서

한국과 동남아시아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기사가 매우 적은 것은 한국신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제화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신문이 보도 지역의 다양성을 높여서 세계의 여러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를 보면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의 순서로 많이 보도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서구에는 중립과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강했다.

국제뉴스를 도덕·정의, 정치, 경제·과학, 사회, 외교·국방, 인간적 흥미, 인물 등 7개 주제로 분류해서 분석했다. 주제별 보도량을 보면 한국신문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외교·국방, 도덕·정의, 정치 등 경성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서구에 대해서는 인간적 흥미, 인물 등 연성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했다. 한국신문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꼭 전달해야 하는 사실에 우선적인 뉴스가치를 둔 반면 서구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흥미를 끄는 화제성 뉴스와 인물에도 높은 뉴스가치를 부여해 아시아보다 뉴스 주제의 다양성이 높았다.

주제별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태도를 보면 대륙에 관계없이 인물 주제에서는 긍정적이고, 인간적 흥미 주제에서는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많았다. 도덕·정의, 사회 주제에서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정치, 외교·국방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서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반면 경제·과학 주제에서는 아시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서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주제별 보도량과 보도태도를 종합하면,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외교·국방, 도덕·정의, 정치에 관한 기사가 매우 많고, 서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물과 중립적인 인간적 흥미 기사가 가장 많았다. 그 결과 한국신문은 아시아보다는 서구 중심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내게 됐다.

따라서 한국신문의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성기사 이외에도 인물, 화제거리 등 다양한 뉴스거리를 발굴해서 전달해야 할 것으로 해석됐다. 또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경제적 주제에서 아시아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가 가장 많았던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정치 등 다른 분야도 발전하면 한국신문의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디어, 정부, 민간조직, 개인, 자료 등 5개 핵심 정보원 가운데 미디어 정보원만이 서구와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의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동아시아에 대한 기사에서는 서구와 아시아 미디어가 비교적 균형있게 등장했지만, 그 밖의 지역에 관한 국제뉴스에서는 서구 미디어가 핵심 정보원이었다. 인터넷 시대에도 서구 미디어가 국제뉴스를 주도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아시아와 서구 미디어는 모두 자신이 속한 대륙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신문이 서구 미디어에 많이 의존할수록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서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아시아 미디어를 정보원으로 많이 활용하면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가 좋아질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한국신문이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를 개선하고 아시아와 서구를 균형있게 보도하기 위해서는 특파원 파견이나 현지 통신원 활용 등으로 아시아 뉴스를 직접 취재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기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다양한 아시아 미디어를 정보원으로 인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파원 등 가용자원이 많은 신문일수록 국제뉴스 제작시 외국통신사 의존 정도가 낮아지고, 미디어 조직의 정보처리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김경모, 2000).

한국신문의 국제뉴스가 서구 중심으로 보도되는 이유에 대해 국제뉴스의 주제, 보도량, 보도태도,

외국 미디어 정보원을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국신문과 기자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시아에서도 알 자지라 등 다양한 국제적인 미디어들이 생겨났고, 기자들도 인터넷으로 이런 미디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한국신문은 서구 미디어의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보다 서구에 대해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전달하는 등에 대한 연구다. 아시아보다 서구에 선진국이 많아서 배울 점이 더 많은 점, 중국·일본이 이웃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외교·안보나 경제에서 미국 등 서구가 매우 중요한 점,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서구식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 서구 문화에 가까워진 점,²⁴⁾ 국제적인 상업적 뉴스 가치 등이 한국신문의 국제뉴스 선택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이유를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신문의 국제뉴스 게이트키퍼 과정과 기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신문의 국제뉴스에 등장한 서구와 아시아 미디어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서구와 아시아 미디어의 보도태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서구와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서구와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를 연구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한·중·일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 올해부터 시행. 구교태·김세철(2004). 전국지와 지역지의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경제학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7호, 7~34.
- 권미경(2009). 『다문화사회와 평생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김경모(2000). 중앙일간지 국제면의 기사선정 유사성에 관한 연구. 국제뉴스 보도의 조직적 결정 요인. 『한국언론학보』, 44권 3호, 5~39.
- 김경희(2009). 텔레비전 뉴스 네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7~46.
- 김경희(2011).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게시판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권 4호, 5~41.
- 김경희·노기영(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1~387.
- 김성해(2007). 국제공론장과 민주적 정보질서: 미국 헤게모니 관점에서 본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이론적 한계와 대안 모색.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82~104.
- 김성해·김경모(2010). 동아시아공동체와 언론. 『언론과학연구』, 10권 1호, 77~123.
- 김성해·김동윤(2009). 금융위기와 언론: 2008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 언론의 보도양상과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9권 4호, 98~134.
- 김성해·송현진·이나연·이정환(2010). 주류 미디어 공론장의 이상과 현실. 『커뮤니케이션이론』, 6권 1호, 144~190.
- 김성해·유용민·심영섭(2011).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국제뉴스. 『언론정보연구』, 48권 2호, 181~222.
- 김수정(2009).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 신문의 보도특성. 『사회과학연구』, 19권, 1~20.
- 김영옥·장호순(2002). 『한국의 국제뉴스: 신문·뉴스통신 보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24) 뉴스 이외에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서구의 초국적 미디어 기업의 문화지배가 계속돼 개발도상국 등 주변부에서는 북미와 서유럽의 사고와 가치, 생활방식 등이 소비상품과 대중문화를 통해서 급격히 확산되었다(유동주, 1997; 임동욱, 2009).

- 김택환(1994). 국내일간지·외국정론지 국제뉴스 보도량 비교 『신문과 방송』, 3월, 16~23.
- 박기순·이남표(2001). 국제뉴스 정보원의 변화와 이미지 매핑. 『신문과 방송』, 371호, 51~55.
- 박천일(1996).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메커니즘 비교 분석 연구: 한국 KBS, SBS와 미국 CNN의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 문화』, 7권, 70~97.
- 반현·김남이·노혜정(2010). 한국 경제에 관한 국내외 언론 보도경향 비교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397~422.
- 송덕호(2008). 다문화사회의 방송정책에 ‘다양성’·‘소통’의 가치담아야, 『신문과 방송』, 9월호, 112~115.
- 신혜영(2011). 미국 대중매체에 나타난 아시아 남성의 이미지: 편견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학 연구』, 33~57.
- 심재철(1997). 일탈성 뉴스가치 중심으로 본 한국 신문의 국제뉴스 보도 『언론과 사회』, 통권 제15호, 33~61.
- 양정혜(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 47~77.
- 오대영(2007). 『넛폰 리포트』. 서울: 중앙북스.
- 오대영·안진경(2011). 『다문화가정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외교통상부(2011).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유동주(1997). 서구화과정에서 표현되는 현대 한국 미디어 문화의 정체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9호, 136~164.
- 윤석홍·김춘옥(2004). 『신문방송, 취재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이건호(2006). 한국 인터넷 매체들의 상호 의제설정 효과: 8개 온라인 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200~227.
- 이승선(2011). 신문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사회과학연구』, 22권 2호, 23~51.
- 이재원·김정탁(1995). 경제·인권문제 보도 여전히 미흡 자기 중심적 뉴스관에서 탈피해야, 『신문과 방송』, 9월, 108~113.
- 임동욱(2009).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151~186.
- 장태한(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 99~113.
-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 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405~427.
- 정의철·이창호(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스 위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84~110.
- 정태철(1995). 제목소비자의 증가와 신문제목의 이해도. 『한국언론학보』, 제33호, 203~228.
- 정현숙(200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2권 3호, 27~44.
- 조영환(2011). 아시아 스포츠 셀러브리티 생각하기. 『언론과 사회』, 19권 1호, 2~41.
- 최원석·반현(2006). 공중 의견과 행동에 대한 의제설정 효과 모형의 검증: 부동산 이슈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406~435.
-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권 2호, 157~183.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
- 허영식(2011). 『다문화·세계화시대의 시민생활과 교육』. 서울: 강현출판사.
- 홍지아·김훈순(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544~583.

- Barry, M.(2012). Notes from the semi-periphery: Ireland's press coverage of the developing world and the value of small state studies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research.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4(2), 124~144.
- Berger, G.(2009). How the internet impacts on international news: Exploring paradoxes of the most global medium in a time of 'hyperlocalism'.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1(5), 355~371.
- Chang, T.(1998). All countries not created equal to be news: World system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25, 528~563.
- de Vreese, C. H.(2004). The effects of frames in political television news on issue interpretation and frame salien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36~52.
- Ford, T. E. (1997). Effects of stereotypical television portrayals of African-Americans on person percep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3), 266~275.
- Franks, S.(2010). The neglect of Africa and the power of ai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2(1), 71~84.
- Galtung, J., & Ruge, M. H.(1965).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Journal of Peace Research*, 2(1), 64~91.
- Gans, H. J.(2004). *Deciding what's new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 Gitteken, J. V.(1998). *Understanding global news*. London: Sage.
- Gorham, B. W.(1999). Stereotypes in the media: So what.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 10(4), 229~247.
- Harcup, T., & O'Neill, D.(2001). What is news? Galtung and Ruge revisited. *Journalism Studies*, 2(2), 261~280.
- Hester, J. B., & Gibson, R. (2003). The economy and second-level agenda setting: A time-series analysis of economic news and public opinion about the econom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1), 73~90.
- Himmelboim, I.(2010). The international network structure of news media: An analysis of hyperlinks usage in news web si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4(3), 373~390.
- Kalyango, Jr., Y.(201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CNN international's coverage of Africa.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5(2), 160~179.
- Kim, K., & Barnett, G. A.(1996).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news flow: A network 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23(3), 323~352.
- Kiousis, S.(2004). Explicating media salience : A factor analysis of New York Times issue coverage during the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Mar, 71~87.
- McNelly, J. T., & Izcaray, F. (1986). International news exposure and images of nations. *Journalism Quarterly*, 63(3), 546~553.
- Miller, J. M.(2007). Examining the mediators of agenda setting: A new experimental paradigm reveals the role of emotions. *Political Psychology*, 28(6), 689~717.
- Perry, D. K.(1990). News reading,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countries. *Journalism Quarterly*, 67(2), 353~358.
- Peterson, S.(1981). International news selection by the elite press: A case study. *Public Opinion Quarterly*, 45, 143~163.
- Riffe, D., Lacy, S., & Fico, F. G.(1998). Analyzing media messages. 배현석 역 (2001). 『미디어 내용 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ande, O.(1971). The perception of foreign news. *Journal of Peace Research*, 8(3/4), 221~237.
- Severin, W. J., & Tankard, J. W.(2001).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in Mass Media. 박천일 · 강형철 · 안민호 공역(2005),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 Smith, R. F.(1969). On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A Comparison of the New York Times and the Indian White Papers. *Journal of Peace Research*, 6(1), 23~36.

Soroka, S. N.(2002). Issue attributes and agenda-setting by media, the public, and policymaker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3), 264~285.

Sumpter, R. S., & Braddock, M. A.(2002). Source use in a “news disaster” account: A content analysis of voter news service stori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9(3), 539~558.

Tai, Z.(2000). Media of the world and world of the media: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rankings of the ‘Top 10 World Events’ from 1988 to 1998.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2(5), 331~353.

Thussu, D. K. (2006). *International communication* (2nd). 배현석 역 (2009). 『국제 커뮤니케이션』. 경기도 파주: 한울 아카데미.

Wu, H. D.(2003). Homogeneity around the world? : Comparing the systemic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news flow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5(1), 9~24.

두피디아(2012. 06. 15). 대륙,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5002

두피디아(2013. 01. 11). 아시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0486

두피디아(2013. 01. 12). 유럽,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9548

아이서퍼 <http://www.eyesurfer.com/>

한국무역협회(2012. 07. 12). 대륙/경제권별 수출입, 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_kita.jsp?menuId=01&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n=kor^statid=kts&top_menu_id=db11

(투고일자: 2012. 11. 29, 수정일자: 2013. 01. 18, 게재확정일자: 2013. 01. 23)

ABSTRACT

**Differences of news aspect about Asia and West
in Korean newspapers and its reason:
Focusing on news topic, amount of news,
news tone and media sources.**

Day-Young Oh*

Asia is developing rapidly in 21st century.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Asian countries have greatly increased. Korea entered the multicultural society. It became important for Korean people to understand Asia more correctively. Korean media can play a key role for this. In this point, I analyzed 1786 news contents reported in 2011 by four Korean newspapers(Chosun Ilbo, Dong-A Ilbo, Hankyoreh newspaper, Kyungh Kyunghyang Daily News), to see differences of Asia and West news aspect and its reason, focusing on news topic, amount of news, news tone and foreign media sources. In amount of news, the percent of West(54.3%) was higher than that of Asia news(45.7%). In news tone, negative news were the most in Asia news, but the least in West news. Korean newspaper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 West than Asia. 1786 news were classified into seven topics(morality and justice, politics, economics and science, society,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human interest, people). In news amount of seven topics, Korean newspapers reported hard news like morality and justice more than soft news like human interest about Asia. However they reported many soft news about West besides hard news. In news topics and tone, hard news showed negative tone most and soft news showed neutral or positive tone most. As a result, Korean news showed the negative attitude to Asia and the positive to West. Among five main sources(media,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individual and material), only media source affected the differences of news attitude to Asia and West. Asia media source took the more positive attitude to Asia than West. West media took the negative attitude to Asia most and the neutral attitude to West most. Korean newspapers used West media as main sources in the news of all areas except East Asia. As a result, Korean newspapers showed the West-centered-attitude and reported the negative news more than neutral and positive about Asia. It was suggested that Korean newspapers had better increase Asia news in diverse spheres by the direct reporting of the correspondent and the more use of Asia media through the internet.

Keywords: Korean newspapers, Asia, West, news topic, the amount of news, news tone, media source

*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Gachon University